2025 유아 평가 지원 자료

유아 평가 2025

유아의 삶과 배움을 찾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유아 평가

2025

유아의 삶과 배움을 찾다

유아의 삶과 배움을 찾다

"유아 평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아마 많은 교사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확신이 들지 않고, 방향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평가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좀 더 의미 있는 평가를 실천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유아의 말과 몸짓에 귀 기울여 마음을 읽으려 애쓰며,
삶과 배움의 순간에 함께 웃고, 함께 놀라워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유아평가 2024 '유아의 삶과 배움을 담다'로, 우리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평가의 새로운 지향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가는 유아를 깊이 이해하고, 교사의 성찰과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며,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도 강조했듯, 평가는 유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여정입니다.

유아 평가는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히 더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놀이와 활동, 일상의 순간들, '왜 그랬을까?' 자문하며 남긴 하루의 기록 한 줄, 하루하루 질문하고 고민한 흔적, 그 모든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절차나 문서를 수집해 남기는 일을 넘어, 유아에게 귀 기울이고 배움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교사와 유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경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그 자체가 평가이며, 곧 교육과정입니다.

이에 유아평가 **2025 '유아의 삶과 배움을 찾다'**에서는 관찰과 기록이 평가로, 평가는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은 다시 유아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과정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실천을

이어온 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유아의 삶과 배움에 귀 기울인 이야기
두 번째, 판단이 아닌 이해의 과정으로 평가를 이어간 이야기
세 번째,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간 이야기
네 번째, 관찰과 기록을 다시 돌아보며 깊어가는 평가 이야기
다섯 번째, 학부모와 함께 놀이를 확장해 간 이야기
여섯 번째, 특수교사와 하루 한 줄 기록을 이어가며 유아를 이해한 이야기
일곱 번째, 누적된 놀이의 흔적을 따라가며 생활기록부를 써 내려간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사례가 아니라, '평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인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발견한 작은 배움과 성찰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흔들리며 길을 찾아온 여정 속에서 우리는 유아의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2014)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교사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유아의 삶과 배움을 바라보는 눈은 한층 깊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엮어낸 **유아평가 2025 '유아의 삶과 배움을 찾다'**의 이야기들이 모든 교사들의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어, 서로의 길을 밝히는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유아 평가 2025

유아의 삶과 배움을 찾다 02

I 고유한 유아를 깊이 이해하는 평가

01 • 질문을 이끄는 시선의 변화, 유아의 삶을 읽는 평가 08

II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평가

02 • 평가로 이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 18

03 • 평가로 변화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28

III 교사의 성찰과 사유로 배움이 깊어가는 평가

04 • 성찰과 사유로 나의 관찰기록 다시 방문하기 ····· 40

IV 관계와 참여로 더해지는 평가

05 • 함께해서 더 행복한 유아 평가 ····· 50

06 • 관계와 참여로 유아 평가 더하기 ····· 58

V 유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순환적 평가

07. 생활기록부, 아이를 다시 만나는 시간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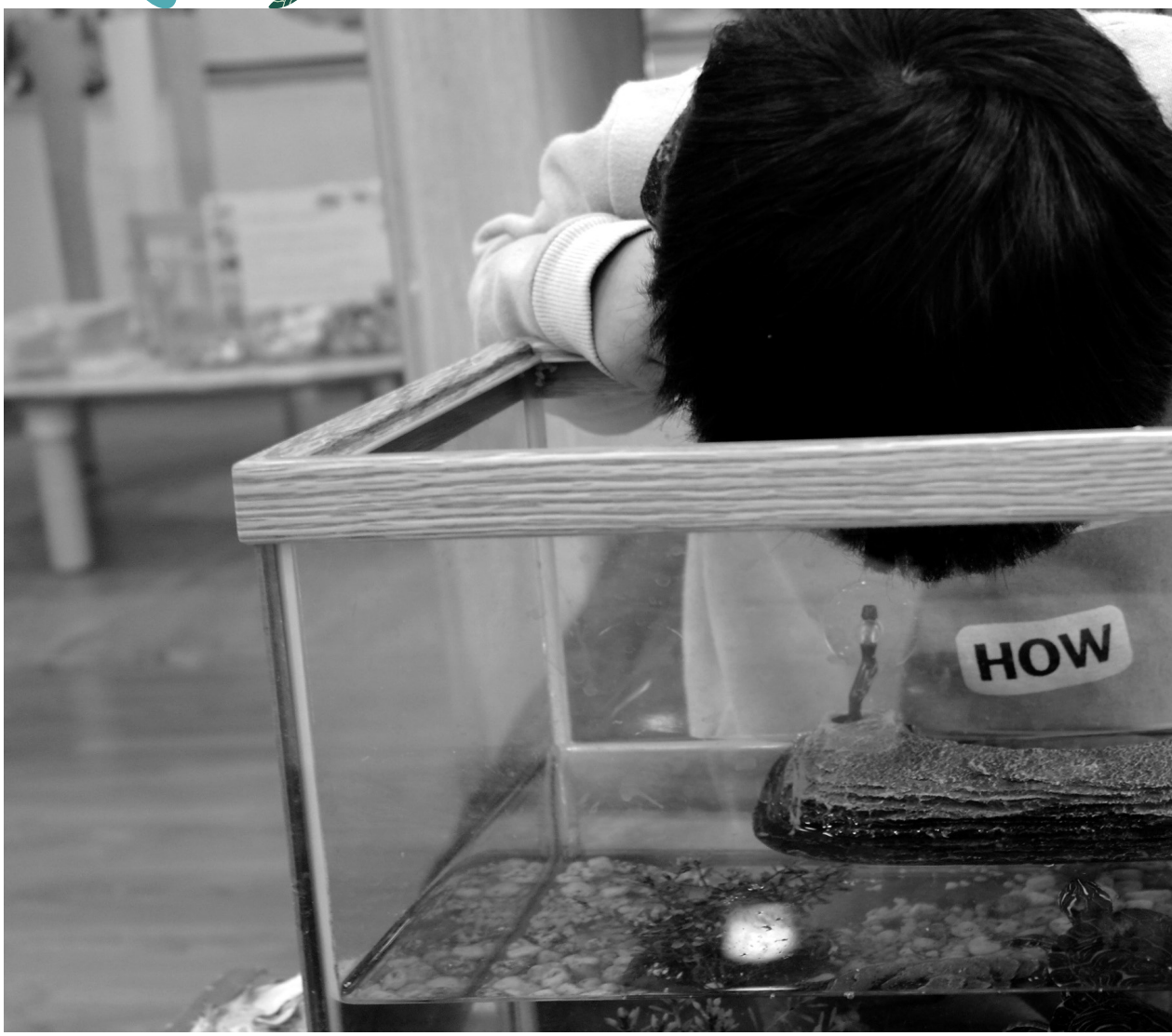
01. 질문을 이끄는 시선의 변화, 유아의 삶을 읽는 평가

“

유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다.
말과 행동만으로 유아의 수백가지 언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아에게 궁금해 하는 것,
‘질문’은 유아 평가의 출발점이 된다.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배우고 있는가?’에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교사의 질문이 깊어질수록
평가는 유아의 삶에 더 가까워진다.
질문이 이끄는 시선의 변화로 비로소
우리는 유아의 삶을 이해하고 깊이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

01 질문을 이끄는 시선의 변화, 유아의 삶을 읽는 평가





교사의 질문은 유아를 고유한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

자기만의 리듬으로 나아가는 유아

유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상우는 오늘도 교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다. 움직이지 않고 말도 없었다. 교사의 머릿속에 스친 첫 문장은 "또 아무것도 하지 않네..." 였다.

하지만 곧 나는 깨달았다. 귀 기울인다는 것은 단지 유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몸짓, 때로는 말하지 않는 고요 속에 담긴 의미까지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그동안 상우의 침묵 속 이야기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단지 '멈춰 있는 모습'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상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
"내가 아직 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순간이 상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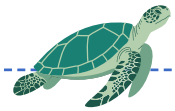
"나는 일상의 순간이
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나?"

이어지는 질문 끝에서,

나는 비로소 그저 '상우'라는 존재로 상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상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었다.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리듬'에 맞춰 배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상우는 관찰을 통해 주변을 유심히 살피며 세상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고 있던 것이다.





움직이지 않던 상우의 몸은
어느새 거북이 수조
앞으로 향해 있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했지만,
눈은 거북이를 따라 바쁘게 움직였고
작은 손도 수조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입술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했다.



거북이는 상우가 낯선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의지한 존재이자,
세상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다리가 되어 주었다.

상우는 그 곁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렇게 천천히 관계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조심스런 몸짓으로 관계를 열어가는 유아

어느 날, 상우는 조개껍데기를 들고 아무런 말도 없이
친구에게 다가가 귀에 살며시 대었다.
“들려?”라고 속삭이는 듯한 조심스러운 행동이었다.
그 안에는 ‘이건 내가 찾은 소리야’,
‘너와 나누고 싶어’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 작은 움직임은 또 다른 질문으로 나를 이끌었다.



"이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아이에게 감각과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이 아이의 배움은 말이 아닌 감각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말 대신 감각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상우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상우는 단지 '표현이 적은 아이',
'관계 맺기가 어려운 아이'가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배우는 아이'였다.
직접적인 말보다는 조심스런 몸짓으로
'함께'의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야기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유아

그렇게 친구에게 용기 내어 다가선 상우는 어느 순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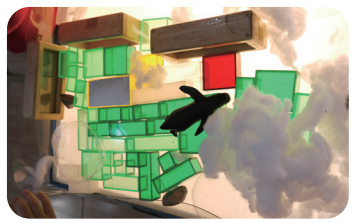


"이 아이가 그리고 싶은
세계는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 것일까?"

상우는 한 장의 종이에 거북이와 다양한 바다 생물들을 가득 채우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쳐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다 속 생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거북이와 바다 친구들을 섬세하게 그려나가는 손길과 색을 섞어가며 종이에 집중하는 눈빛에서, 상우가 자신의 내면 이야기를 천천히 몰입하며 펼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에 나는 라이트 테이블 위를 바다로 상상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해 주었다. 상우가 이미 그림 속에서 보여준 바다 친구들의 모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상우의 내면에 머물러 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돕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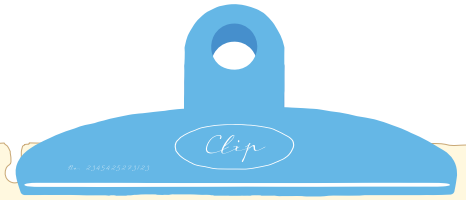




상우: 띵동
민성 : 누구십니까?
상우: 상어!!
민성 : 상어 무서워요
상우 : 띵동 띵동~ 이건 마법의 물약이야! 자~ 먹으면 나으니까 괜찮아질거야

상우는 '상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 공간은 상우에게 내면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표현의 장이자, 친구들과 연결되는 소통의 무대가 되었다.

'감각으로 말을 걸던 아이'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나누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살아 숨 쉬는 이야기로 확장되었다.



유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질문'이다.
질문은 유아를 보는 교사의 시선을 흔들고,
유아와 교사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우를 통해 나는 배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자기만의 리듬으로 세상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만남의 방식은 조용하고 섬세했지만,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질문이 있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고,
더 관심갖고 들여다 보며
유아의 삶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었다.

유아의 배움은 단순한 말이나 행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
유아가 보이는 작은 몸짓, 한마디 말,
미세한 표정 속에 담긴 의미를 길어 올리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가' 이다.

질문이 깊어질수록, 평가는 유아의 삶에 더 가까워진다.
질문은 평가의 시작이자, 평가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02. 평가로 이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

“

매일 매 순간 펼쳐지는
유아들의 놀이와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며
교사는 관찰-기록-지원,
그리고 다시 관찰-기록-지원의
과정을 이어간다.
교사에게 평가는 ‘판단’이 아니라
관찰하고 기록한 것을 다시 보며
유아가 놀이에서 만들어 내는 배움과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유아의 배움을 위해
가장 좋은 지원을 선물한다.
유아는 매일매일 행복한 선물을 받으며
배우고 성장해 간다.

”

02 평가로 이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



교사의 일상 고민과 유아 평가 연결하기

일상의 평가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

(유아평가2024 p.18)



놀이의 일상

오늘도 유아들은
선생님을 찾는다.
시시콜콜한 작은 이야기도 다 들어달라고
한꺼번에 조잘거린다.

선생님을 찾지 않은 유아는
어마어마한 일을 개시하기
1분 전일 수 있다.

교사의 일상

왁자지껄한 순간에도 교사는
유아를 관찰하고
놀이 흐름을 살핀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생각한다.
유아와 함께하는
교사의 모든 시간 속에
관찰과 평가가 있다.

하나. 놀이 속 발견



"저 좀 보세요. 예쁘죠?"

사인펜과 매직으로 지우의 손톱과 손끝이
색깔로 잔뜩 칠해져 있다.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뺨과 콧등, 옷에도 사인펜 색이 물들어 있다.
요즘 들어 지우가 여기저기 책상에 낙서를 하거나 스탬프를 찍거나
몸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모습이 종종 관찰된다.

지우는 왜 몰래 지우기 어려운 낙서를 하고 자기 손에 색칠을 하는 걸까?
안돼! 하는 행동을 굳이 하고야 마는 지우가 걱정이 되었다.



이따금 내가 생각하는 놀이와 놀이 주체자인
아이들의 놀이에서 느껴지는 '놀이의 온도차'를 발견한다.
지우는 지금 놀이를 하는 걸까? 말썽을 부리는 걸까?

둘. 기록 돌아보기

지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그동안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의미있는 놀이 관찰 내용보다는 유아의 실수나 문제 행동, 갈등 상황의 기록이 많았다.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이 한 줄의 글에서 그날이 떠올랐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란 미니카를 선점한 친구가
지우에게 놀이할 기회를 주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친구는 미니카를 빌려주기에 충분히 놀지 못했고,
지우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었다.
갈등의 끝에 친구는 “너랑 안 놀아.”라고 말했다.

지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속상한 마음을 교사에게 표현했다.
그 뒤로도 작은 갈등이나 떼쓰는 일이 발생했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함께 놀기’보다는
‘친구들이 놀아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상황의 기록이
교사의 일지 노트와 관찰 패들렛 앱에 누적되었다.



셋. 다시 관찰하기

지금의 지우를 더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읽기 위해
보다 집중하여 관찰해보았다.
그리기는 잘했지만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에 서툰 지우는
혼자 즐겁게 놀이할 것을 '색'에서 찾았다.
평소 지우의 강점을 키워주고 싶어서 그림을 그릴 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리기나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챙겨주었더니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 또렷한 색감의 그림을 자주 그렸다.
그러던 어느날,



"내 몸에
무지개가 생겼어."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지우는 종이테이프에 사인펜으로 촘촘히 색을 칠했다.
색이 듬뿍 칠해지면, 그 종이테이프를 손등 위에 찍는 놀이를 시작했다.
다른 유아들도 하나 둘 관심을 가지고 지우의 놀이를 관찰하거나 흉내 냈다.
놀이는 유행처럼 번져갔다.
혼자였던 지우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표정이 환해지고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피부에 직접 그리는 것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예쁜 모양의 스탬프들을 제공하고 새로운 미술 놀이도 소개해 주었지만,
유아들은 몸에 직접 그리고 색을 찍는 지우가 고안한 놀이를 더 재미있어했다.

넷. 교사의 고민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에 서툴렀던 지우는 종이테이프로 손에 물들이는 놀이를 소개하며 우리 반 인기인이자 새로운 배움을 전하는 매력적인 아이가 되었다. 그러나 잉크와 합성 색소가 피부에 직접 닿는 지우의 놀이를 어찌해야 할지 나의 고민은 커져만 갔다.

지우는 이 놀이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을까? 위험해 보이는 이 놀이를 멈추게 해야 할까?

지우는 이 놀이를 통해
친구와 함께 놀이하게 되었고,
놀이의 중심이 되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색이 표현되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있어.
정말 기발하고 똑똑한 아이야.

그래도 이대로는 안돼.
몸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데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날 수 있어.
즐겁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행복한 놀이는 없을까?
다른 방안을 더 생각해 보자.
재료와 도구를 바르게 쓰임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해.

다섯. 지원하기 1 - 경험 생각 모으기



**"아주 예전에는
꽃잎과 나뭇잎 등으로
색을 만들고
물들이기를 했대!"**

“선생님 선물이에요.”
바깥 놀이를 하던 중 유아 한 명이 떨어진 꽃잎과 나뭇잎, 가지 등을 모아왔다.
마침 지우도 다가와 친구가 모은 자연물에 관심을 보였다.
조각 천 위에 자연물을 두고 작은 돌로 콩콩 찧어 색이 물드는 것을 보여주며
혹시 사인펜이나 매직 등의 미술 재료가 아닌 방법으로
색을 물들이거나 손톱에 물들여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유아들은 손수건 염색, 봉숭아물 들이기, 또는 엄마랑 네일아트 샵에 다녀온 이야기와
집에서 반짝이 매니큐어를 발라 본 이야기를 하였다.
왜 선생님이 미술 재료로 몸에 그림을 그릴 때 걱정하는지 유아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여섯. 지원하기 2 - 다시 또 놀이



"짜잔~
네일아트샵입니다.
궁금한 친구들
놀러 오세요"

반 유아들과 네일아트 가게 놀이를 준비하고
‘오늘의 네일 컬러’도 유아들의 투표로 정했다.
호기심이 많은 지우는 네일아트 가게의 첫 번째 손님으로 찾아왔다.
작은 손가락 위 더 작은 손톱 위에 색을 더해주자
평소보다 편안하게 마음 속 이야기를 한다.
지우 말고도 말수가 적은 유아나 속상한 일에 입을 꾹 닫는 유아들도
“네일아트 놀이 하자.” 하고 손톱에 색을 칠하며 대화를 시작하면
금방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는지 대답도 잘하고 때론 비밀 이야기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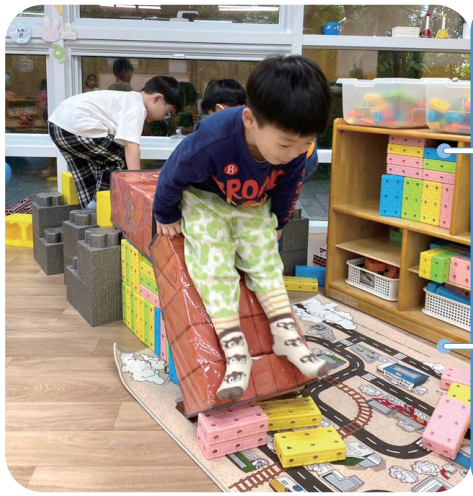


네일아트 놀이를 하면서 지우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구는 새롭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지우는 네일아트 가게의 직원이 되어 친구들의 손톱이 마르는 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를 맞추어 주고, 자신도 함께 기다리는 법을 연습했다.

일곱. 놀이와 배움, 그리고 평가

네일아트 놀이를 통해
평소 손톱을 깨물던 지우는
예쁜 손톱을 지키려고
조금 더 참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매니큐어를 말리지 않으면
번지는 현상을 발견한 친구들도
타이머 시간의 숫자를 헤아리며
참아보는 연습을 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교사와 유아들이
만나 까르르 노는 한 장면이지만
그 안에서 교사는 숨 쉬듯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의미를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과 평가는
하나로 묶어지고 우리 반 만의
새로운 놀이와 배움이 탄생한다.

덧붙여,
지우의 관찰과 기록을 되돌아 보는 과정에서
유아의 문제 행동에 더 집중한
관찰 기록을 반성하고
유아 평가에 대한 나의 방향성도
점검하게 되었다.
덕분에 나의 기록도 좀 더
놀이의 과정과 유아의 배움에
중점을 두고 변화했다.



오늘의 놀이

오늘도 유아들은
신나게 놀이한다.
입주가 시작되어
고층 새 아파트로 이사온
우리 반 대부분의 유아들은
자신의 삶이 담겨있는
블록 놀이를 한다.
아파트 이름도 써서
척! 붙여놓았다.
그런데,

아! 높아도 너무 높아.



오늘의 교사

높이와 크기에 관심이 생긴
우리 반 유아들에게
줄자도 제공하고
교실의 다양한 물건의 높이도
같이 측정해 보았다.
그래서인지
블록은 점점 더 높아졌다.
이제는 안전을 위해 함께
생각 모으기를 할 순간일까?
이렇게 나는 오늘도
관찰하고 기록하고 지원하며
하루를 보낸다.

03. 평가로 변화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

평가는 교사만의 몫이 아닌
유아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이다.

관찰과 기록을 통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귀 기울이고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다르게 놀이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유아의 특별한 이야기에 함께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넘어
유아와 함께 배우며 살아간다.

”

03 평가로 변화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 일상생활 속 발견



언제나 사랑받는 클레이 놀이!

"클레이가 딱딱해."
"나도 딱딱해서
엄청 꾹 눌렀어!"



우리 반 아이들은 클레이 놀이를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시판되는 인공 클레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엔 분리배출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
쓰레기통에 왜 이렇게
클레이가 많아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클레이

"선생님, 쓰레기통에 왜 이렇게 클레이가 많아요?

버려진 클레이가 가득한 쓰레기통을 보며 유아의 질문을 가만히 곱씹어본다.
그동안 너무 많이 사고, 놀고, 버리는 패턴이 익숙했던 것이 아닐까?
유아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 관심을 생태전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과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되었다.

둘. 함께 생각하기

유아들이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이고 우리의 미래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이 상황을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유아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우리의 놀이 재료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놀이 재료에 대해 생각해본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생각나누기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매일 매일 버리는 쓰레기가 지구 환경을 아프게 한다는 생각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아들의 인식이 일상에서의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았다.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인식과 행동을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셋. 교육과정으로 연결하기

유아와 교사가 제안한 다양한 생각을 모아 유아들이 지속가능한 놀이 재료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젤리, 흙, 새싹, 밀가루, 커피찌꺼기' 등을 지원했다. 교육과정 속 문제 해결을 통해 유아들은 일회성 체험교육을 넘어서 미래 사회를 위한 주도적 실천 주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사장님! 커피찌꺼기 주세요."
"우리 클레이 만들거에요."



유치원 앞 커피가게 사장님께 사전에 유아들의 놀이 의도를 말씀드렸다. 사장님은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해 놀이하려는 아이들을 기특해하며 기꺼이 커피찌꺼기를 모아 지원해주셨다.

"커피냄새 난다"
"이걸로 클레이를 어떻게 만들지?"



커피찌꺼기로 클레이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유아들이 직접 참여한다. 얻어 온 커피찌꺼기를 햇볕에 말리고 체에 쳐서 곱게 만든 뒤 밀가루, 소금, 물을 더해 클레이를 만든다.

커피찌꺼기로 클레이를 만드는 모든 과정 하나 하나가 유아들에게는 즐거운 놀이가 되었다.

"우리 언니 반에도 커피클레이 주고 싶어요."



"집에서도 커피클레이로 놀고 싶어요."

시판되는 인공 클레이를 대신하여 커피찌꺼기 클레이로 놀이해 본다. 커피향이 나는 클레이가 신기했는지 유아들은 놀이하는 동안 옆 반에 있는 언니를 떠올리기도 하고 집에서도 놀고 싶다고 표현했다. 유아들의 의견을 통해 커피찌꺼기 클레이는 다른 학급에 소개되고, 가정에도 전달되며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가 되었다.

넷. 공동체와 함께 평가하기

유아와 놀이를 공유했던 주변인들과 함께 유아의 놀이와 성장을 돌아본다. 다른 학급의 유아, 학부모, 동료교사 등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공동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평가의 장을 열어두었다.

함께 평가하기 1. 다른 학급의 유아



유아들이 만든 커피클레이

학급 유아의 언니가 있는 반으로 가서 커피찌꺼기로 만든 클레이를 소개하고 선물했다.

동생들이 커피찌꺼기 클레이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자, 형님들은 동생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형님반 유아들도 일상에서 경험했던 일이기에 버려지는 놀잇감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동생들이 진행했던 놀이에 대해 형님반 유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영상으로 기록하고 영상은 추후 동생들과 공유했다.

"동생들처럼 지구를 아껴주고 저도 도와줄거에요."



"너희들 멋있어, 사랑해"





"동생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지구가 안 아플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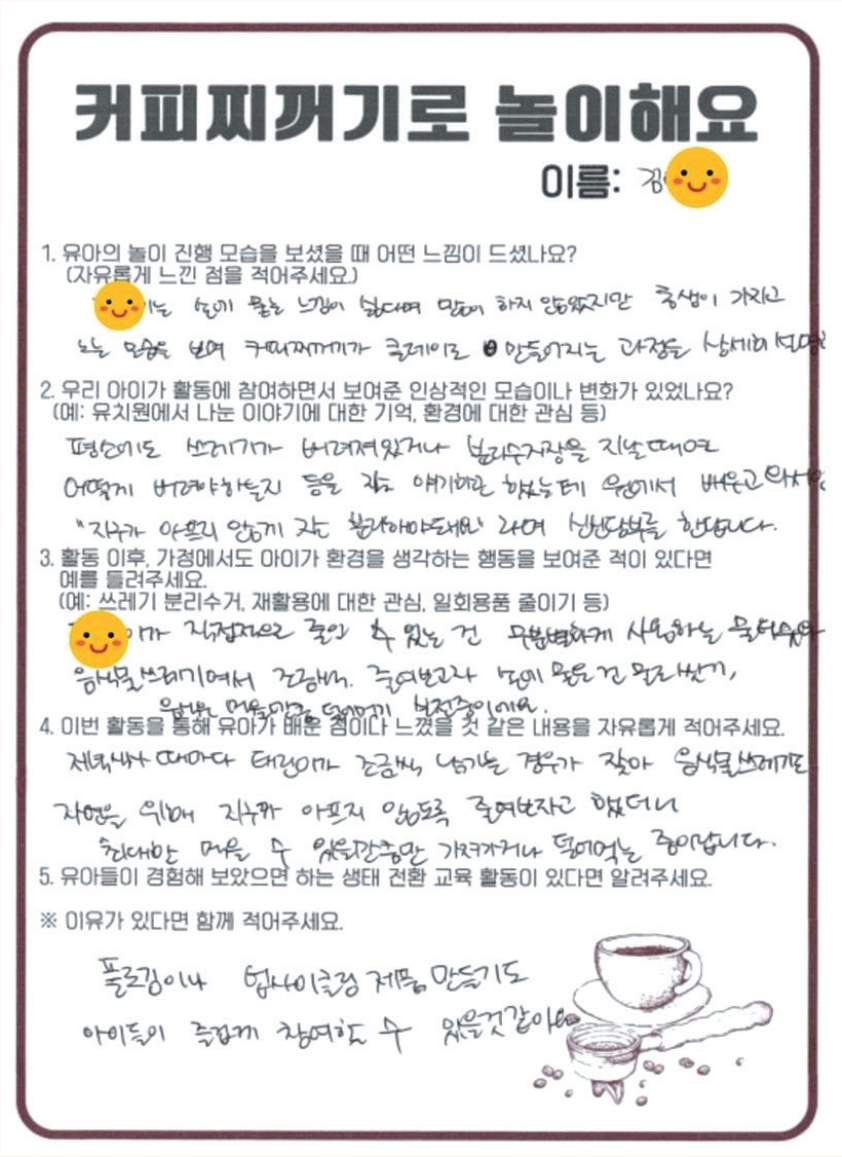


"너희가 커피찌꺼로 재활용을 해서 지구가 괜찮아질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했어?"

함께 평가하기 2. 유아의 보호자

유아들이 가지고 놀던 커피클레이를 집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치원에서의 놀이가 가정으로도 연결되었다. 유아의 놀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놀이 과정을 기록한 영상을 가정으로 보내고 평가 참여를 위한 설문지를 배부했다.

유아평가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유치원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보다 적합한 지원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커피찌꺼기로 놀이해요

이름: 정

1. 유아의 놀이 진행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2. 우리 아이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여준 인상적인 모습이나 변화가 있었나요?
(예: 유치원에서 나눈 이야기에 대한 기억, 환경에 대한 관심 등)

3. 활동 이후, 가정에서도 아이가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을 보여준 적이 있다면 예를 들려주세요.
(예: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관심, 일회용품 줄이기 등)

4. 이번 활동을 통해 유아가 배운 점이나 느꼈을 것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5. 유아들이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 생태 전환 교육 활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이유가 있다면 함께 적어주세요.

함께 평가하기 3. 동료 교사

우리 유치원은 일반학급 3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신규교사 2명과 경력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교사들은 교육 활동에 대한 열의가 높은 편이고 경력교사들은 신규교사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다.

또한 특수학급 유아의 원활한 통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도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시간이 끝난 후에는 학급 운영과 교육 활동 전개를 위한 아이디어 나눔, 유아 평가를 위한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평가는 놀이의 의미를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하고 유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돕는다.

유아에 대한 평가

A교사 마냥 어리게만 여겼던 3세반 유아들이 하는 말 속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숨어 있는게 신기했고 가정에서 엄마에게 활동을 정확히 설명하는 점이 놀라웠어요.

B교사 점토 놀이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과 놀이를 통해 배운 것들을 형님들에게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C교사 아이들이 직접 지역사회로 나가 커피찌꺼기를 받아오고, 오감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막 유치원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참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놀이에 대한 의미 읽기

A교사 놀이가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유아들에게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B교사 유아들이 사회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유치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이 다루지만 정작 놀이나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어요.

C교사 교실에서 버려지는 클레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아가 커피찌꺼기를 모으기 위해 유치원 주변 커피가게에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평가하기 4. 유아 스스로의 평가



다른 학급 유아들의 인터뷰 영상, 학부모, 다른 학급 선생님들의 평가 내용을 공유하여 유아 스스로 우리의 놀이와 일상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유아들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평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배움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쓰레기도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엄마한테 커피클레이 만드는 방법 알려줬어요."

"우리가 지구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냥 클레이보다 커피클레이가 더 좋아요."

"이제 종이도 물도 아껴서 쓸거에요."

"지구가 예뻐졌어요."



커피찌꺼기 클레이로 만든 작품

다섯. 지원하기: 다시 또 놀이

이후 유아들은 지구 환경과 자연 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유아들의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에는 '분리배출' 놀잇감을 지원해주었다. 처음에는 어떤 쓰레기를 어떤 통에 넣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유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나가며 차츰 분리배출 방법에 익숙해졌다.





또한 바깥 놀이를 나갈 때 틈틈이 학부모님이 제안해주신 플로깅을 진행해 보았다. 유치원 주변에 쓰레기가 많지 않아 유아들이 약간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몇 개 안 되는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스스로 유치원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 것에 대해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유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매일 마시는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모아 놓으며 업사이클 만들기를 위한 준비도 계속 진행 중이다. 우유팩을 모아서 일부는 재생 종이를 직접 만들어 놀이하고 일부는 우리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순환 자원 교환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봉투와 교환하는 정책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놀이,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평가를 통해 놀이와 교육과정은 더욱 풍부해지고 유아들의 배움은 더욱 풍성해진다.

여섯. 줌인(ZOOM-IN)으로 개별 유아 바라보기

'줌아웃(ZOOM OUT)'은 나침반이 되어 교육과정의 길을 살피고,
'줌인(ZOOM-IN)'은 창이 되어 유아의 성장과 변화를 살핍니다.
줌인 줌아웃을 통해 '교육과정'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유아의 소중한 성장과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다빈이는 종이의 일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버리거나 클레이의 뚜껑도 잘 닫지 않은 채 조금만 말라도 새 클레이를 달라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던 아이였다. 그러나 커피찌꺼기 업사이클 놀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생기며 눈에 띄게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놀이 과정에서 알게 된 환경 문제에 대해 다른 학급의 유아에게 큰 목소리로 알리기도 하고 종이를 필요한 만큼만 아껴쓰는 모습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집에서도 분리배출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빈이는 놀이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물건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선생님, 클레이가
딱딱해졌어요.
새로운 클레이
주세요."

클레이 보관통
속에 있는 클레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무심코 말함

감각적 경험을
통해 재료의 속성과
변화를 탐구하며
자연 재료와
친숙해지는 경험

"흙을 많이 파면
차가운 클레이를
만들 수 있어"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하는 클레이
재료로 놀이하며
재료의 특성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함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다른 이에게 표현함

"우리가 버린
놀잇감 때문에
지구가 아프대!"

자연 클레이 재료를
소개 하러 형님반에 가서
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이야기함

유치원에서의
경험이 유아의
일상생활로 확장

"어쩐지 요즘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학부모와의 통화를
통해 지구 환경에
대한 다빈이의 관심이
유치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함

ZOOM-IN으로
본 놀이 속
다빈이의 성장



일상의 경험을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보를
또래 및 타인에게
공유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가정에서도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일상 속 실천 태도가
내면화 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음

04. 성찰과 사유로 나의 관찰기록 다시 방문하기

“

나는 다시, 지난 관찰일지를 꺼내어 펼쳤다.
그때는 무심히 지나쳤던 장면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이건 그저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구나’,
‘이 행동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다시 들여다 보니 보이는 장면들
교사의 성찰과 사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시선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그리고 수많은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

나의 교육 실천에 대해
성찰하고 사유하면서 나는 유아 평가가
‘교사 자신의 성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낀다.

”

04 성찰과 사유로 나의 관찰기록 다시 방문하기

매일의 놀이가 이어진다. 쌓기 영역에선 오늘도 익숙한 블록 소리와 아이들의 대화가 교차한다. 아이들은 블록으로 집을 짓고, 공간을 나누고, 새로운 존재들을 초대하며 이야기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기록으로 남긴다.



지난 관찰기록 다시 보기

일시 2025. 3. 17. 10:00~10:20

장소 블럭영역(교실)

대상 유아 강지호, 유희찬, 김도윤



대상 유아

지호와 희찬이가 자석벽돌블록으로 서로의 공간을 나누며 서로의 집이라고 말한다. 이 집은 자석벽돌블럭이 점점 두꺼워지며 공간을 넓혀나간다. 양치를 마친 도윤이가 중간에 들어와 집과 집 사이에 거미들이 살고 있다며 거미 모형을 올려둔다. 도윤이가 거미를 올려놓으며 "푸쉬~ 거미들이 기어간다!" 말하며 놀이에 끼어들자 지호가 물러나서 물끄러미 도윤을 지켜본다.

놀이지원 방안 및 평가

지호는 도윤이가 등장하자 놀이에 물러섰다. 지호는 학기초 아직 친해지지 않은 친구의 등장이나 놀이의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직 어렵다. 자석블럭을 모두 사용하자 집 사이의 벽 세우기가 끝이 났다. 자석 블록 갯수를 좀 더 늘려주어야겠다.

기록을 '다시 본다'.

기록 안에 담긴 아이들의 의도와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이 만들어낸 블록집과 거미 이야기, 지호와 도윤이의 관계를 귀 기울여본다.



지호는 왜 놀이 상황에서 물러났고,
이후에 따로 나와 혼자서 놀이했을까?

도윤이가 놀이에 끼어들던 순간,
지호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다.
그저 도윤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장면이 마음에 걸렸다.
도윤이가 놀이에 들어오자 보이는 지호의 모습은
관계의 미묘한 긴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지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된 걸까?
도윤이의 등장으로 놀이하기가 불편했던 것일까?

지호의 행동에 약간의 걱정과 답답함으로 다른 날의 기록을 살펴 보았다.

2025.3.18.

아이들과 조금 떨어져서 집을 짓는 지호



희찬이와 도윤이가 다시 집과 집 사이의 벽을 세웠다. 이번에는 가로로 조금 더 길다. 벽 위에 거미가 올라갔다. 하나가 다가가 거미를 도와주는 하늘의 독수리와 바다의 돌고래가 거미를 비 맞지 않도록 해준다고 말하며 거미 몸을 덮었다. 수혁이는 “독수리가 거미를 잡아먹으면 어떡해!” 하고 소리쳤고 지호는 아이들 사이로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다른 집을 짓는다.

2025.3.19.

도윤이의 집에서 사는 여러 동물들



교사가 보충해준 벽돌블럭으로 이번엔 집과 집 사이에 벽 뿐만 아니라 집 전체를 블럭으로 만들었다. 도윤이는 어제 등장한 돌고래가 다시 나타나 집 위를 헤엄쳐 다닌다고 한다. 지우는 거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한마리마다 각자의 방을 지어주었다고 소개한다.

2025.3.20.

아이들과 조금 떨어져서 집을 짓는 지호



블럭방에서 도윤, 지호가 다시 집과 집 사이의 벽을 세우다가 블럭방의 블럭이 우리반의 블럭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 도윤이가 “이 블럭은 방이 이미 있어!” 하고 소리치고 지호가 “그러네? 곤충들이 많이 살 수 있겠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블럭방에는 곤충 대신 작은 공룡 모형이 많았고 공룡이 블럭 안의 네모 방에 각각 자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음 날,
지호는 스스로 떨어진 공간에서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다.
자신만의 흐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놀이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지호와 도윤이가 함께 블록방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조금은 더 여유롭게,
공룡 모형과 블럭방을 매개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있었다.

지호는 친구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아이였다.



관찰기록으로만 남겨두고 되돌아보지 않았다면 놓쳤을 지호의 이야기.
이렇듯 내가 무심코 지나친 이야기들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을까?
이번에는 도윤이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질문해 보았다.



도윤이의 '거미'는 놀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도윤이는 갑작스럽게 놀이에 들어왔다.
그리고 거미를 올려두며
"푸쉬~ 거미들이 기어간다!"고 외쳤다.

처음엔 이 행동이 기존에 친구들이 하고 있던
놀이의 흐름을 끊고 방해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후에 이어진 놀이를 다시 들여다보니,
오히려 놀이의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거미는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가진 등장인물이 되었다.
곧 독수리와 돌고래가 등장했고,
거미를 비로부터 보호하고,
방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생겨났다.

도윤이는 놀이의 서사를 확장시켰고,
거미는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약한 존재,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등장했다.
도윤이는 돌봄의 대상으로 거미를 선택했고
이 과정은 상징놀이의 확장이자
유아의 삶의 이야기 그 자체였다.

놀이가 이루어진 장소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다 보니
교실에서 블록방으로 옮겨지며 지호와 도윤이가 다시 함께 놀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블록방이라는 놀이공간 또는 놀잇감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 것일까?



교실이 아닌 블록방의 좀더 다양해진 블록의 종류와
놀이 공간의 변화는 놀이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블럭방에 가자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도윤이는 "이 블럭은 방이 이미 있어!"라고 소리쳤고,
지호는 "곤충들이 많이 살 수 있겠다!"고 응답했다.

이 반응은 단순한 재료 변화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다.
벽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집의 형태에서
블럭의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곤충의 방'이라는 집의 기능을 더한
상상으로 확장한 것이었다.

블록 중간의 구멍들은
거미의 방이자, 또 다른 곤충, 작은 공룡 등
모두 다른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다.

이런 공존이 지호와 도윤이가 어울려 놀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놀이 공간과 놀잇감이 더해져 또 다른 놀이가 탄생한다.
변화에 반응하는 아이들의 사고와 상상은 곧 배움의 순간이다.

이번에는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에 주목해본다.
'집짓기'는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집짓기' 놀이가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은 왜 계속해서 집과 벽을 만들까?





처음엔 단순한 블럭 놀이라고 생각했다.
자석 블럭으로 공간을 나누고
'우리 집'이라 이름 붙인 아이들의 놀이 장면을 보고
그저 구조물을 만들고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집과 벽은 관계의 경계선이었고,
'우리 집', '너의 집'은
자신의 소속감과 역할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점점 벽은 두꺼워졌고, 공간은 넓어졌으며,
그 안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위치를 조율하고,
'함께 있음'과 '떨어져 있음'을 스스로 실험하고 있었다.
공간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며 사회적 질서를 세우고
서로의 관계 맺기 방식을 놀이로 실험하고 있었다.

다시 들여다본 놀이 속에는

관계맺음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고,

자신만의 공간지음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담긴 배움의 조각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놀이 안의 흐름을 정말 이해하고 있었는가?"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는가?"

"놀이 속에 숨어 있던 아이의 말 없는 신호는 무엇이었을까?"

되짚어간 발자국은 궁금증을 만들고,

기록을 새롭게 읽게 하고,

교사로서의 시선을 더 깊게 만든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도 사유(思惟)한다.

05. 함께해서
더 행복한 유아 평가

“

함께 기록한다고요?
하루 한 마디, 두 마디, 매일 나누는
나의 하루 평가의 흔적이 쌓이면
‘나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가는
성찰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느낀다.
기록해야 하니까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바라보는 것,
관찰은 교사가 아이와 맺는
관계에서 출발하고
아이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은
자연스럽게 기록된다.

우리가 한 아이를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그 하루 하루가 쌓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

05 함께해서 더 행복한 유아 평가

함께 기록하는 하루 기록,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유아 평가

우리반 현황

연령 5세반

인원 총 24명
- 일반 유아 22명
- 특수 유아 2명

교사 담임교사 1명, 특수교사 1명 협력

우리반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2명과 일반 유아 22명이 함께 지내는 통합학급이다. 특수교사가 일반학급에서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만큼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학급이다.

그렇지만 특수교사는 주 3일(수~금)만 우리 반에 함께 한다. 월요일, 화요일은 다른 연령의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교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유아들의 놀이 흐름이나 감정 변화, 또 그날의 작은 사건들을 나누지 못하고 수요일에 들어올 때면 왜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지 놀이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이틀의 공백은 교사의 시선에 단절을 만들어내기에 그 단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것이 바로 '함께 기록하는 하루 기록' 이다.

수업이 끝난 후 그날 놀이의 흐름과 유아들간의 관계나 이야기,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의 의미있는 변화 등을 짧게 메모해 특수교사에게 메시지로 전달했다.

예술가 나온이를 함께 바라보는 기록





특수교육대상 유아인 나온이는 혼자서 탈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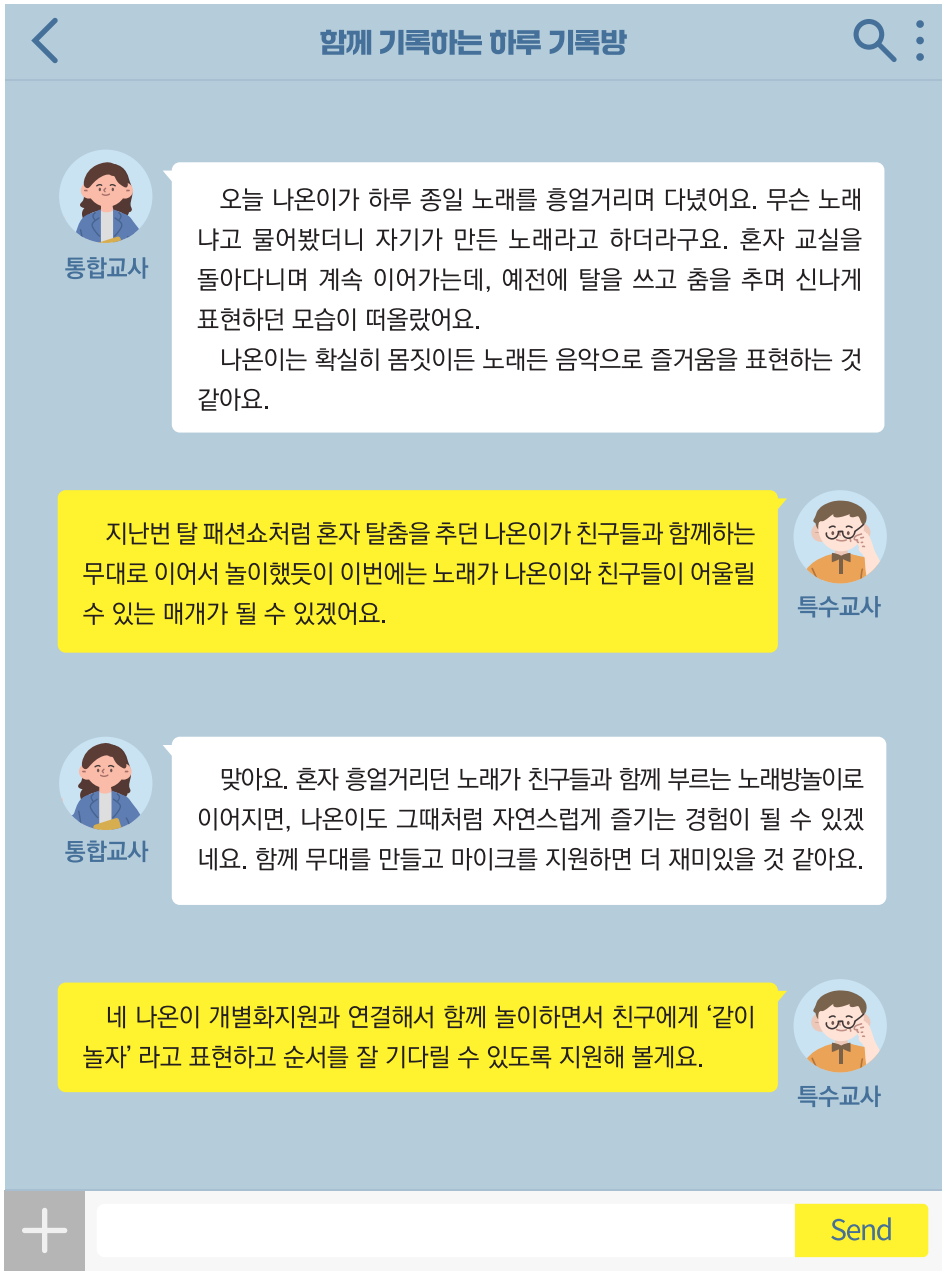
탈을 쓰고 자유롭게 몸을 흔들며 춤추는 모습은 나온이가 자신의 즐거움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 음악에 맞춰 두 팔을 힘차게 휘두르며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고 어깨를 가볍게 들썩이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며 온몸으로 즐거움을 표현해 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온이는 하루 종일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녔다.



나온아 무슨 노래부르는거야? 나온이가 만든 노래야?

나온이는 그저 “네~” 하고 대답하며 교실 이곳저곳을 다니며 기분 좋은 노래를 이어 나갔다. 교사는 그날의 상황을 기록해 수업이 끝난 후 특수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나온이 놀이 지원을 계획해 보았다.





통합학급교사

놀이의 의미를 읽고 배움으로 지원하기

- 나온이는 교사나 친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표현하는 능력이 좋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 마이크를 지원하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특수교사

놀이의 의미를 읽고 배움으로 지원하기

- 통합교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나온이의 '노래'는 이전의 탈춤처럼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이구나 이해한다.
- 개별화교육계획을 바탕으로 놀이 참여 과정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등 사회적 규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 놀이 과정에서 교사가 "같이 하자"라고 언어적 모델링을 제공하며, 유아가 직접 표현하도록 지원한다.

다음날 통합교사와 특수교사는 나온이가 혼자 흥얼거리던 노래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마이크를 지원하였고 유아들은 직접 무대를 만들고 공간을 꾸미며 놀이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하나, 둘
"나도 같이 놀자"며
나온이가 만든
무대 주위로 모여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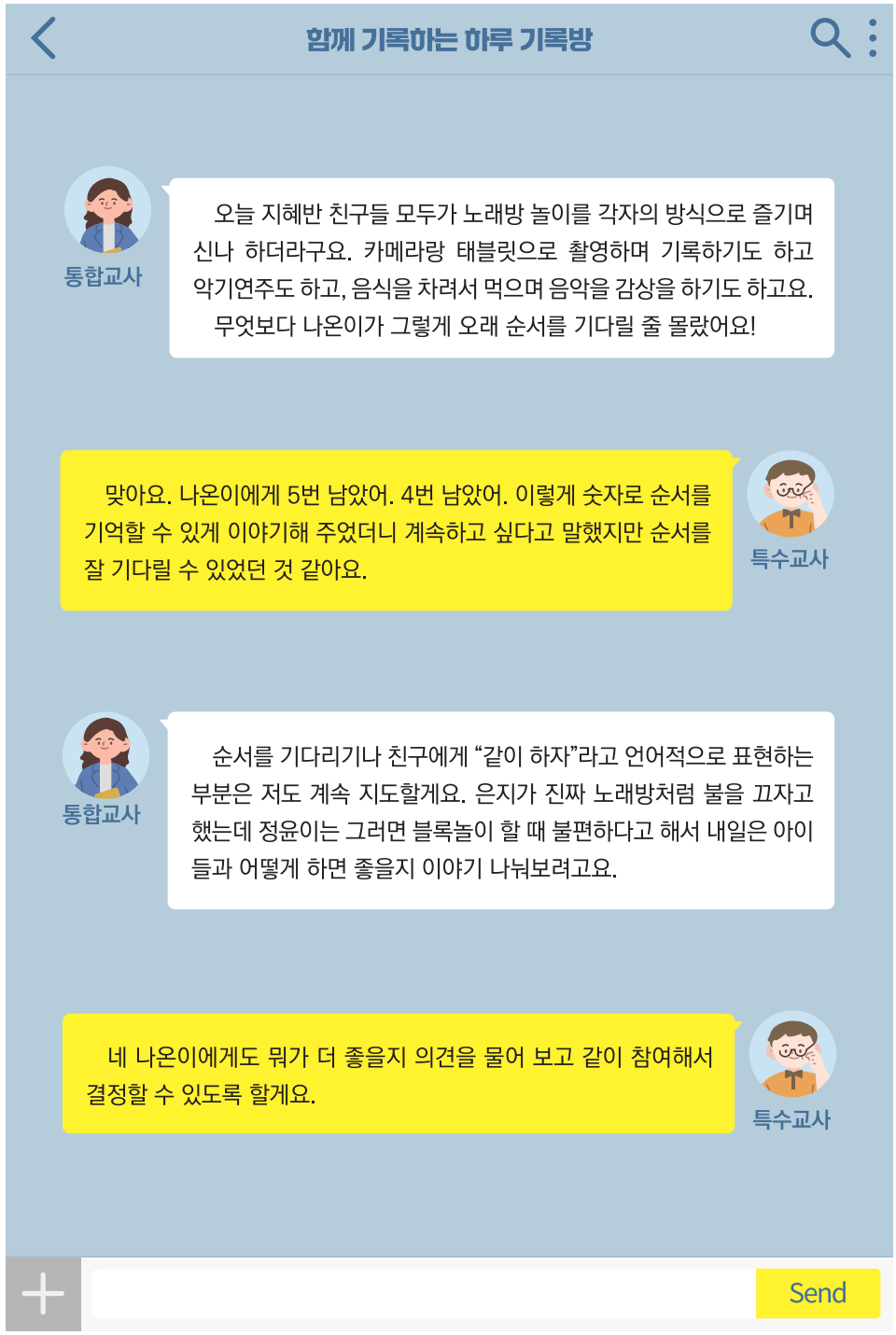
유아들은 각자 하고 싶은 역할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에 참여하였다.





나온이는 노래를 부르는 순서를 정할 때 '나요! 나 할래요'라고 말하며 먼저 노래를 부르고 싶어했으나 유아들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시무룩해했지만, 음료수를 마시는 척하며 친구의 노래를 감상하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가 무대에 올라 멋진 무대 매너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수업이 끝난 후 오늘의 놀이를 특수선생님과 나눈다.





다음날 우리는 불 끄기 문제에 대해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시간을 정해 불을 끄고 놀이하기로 약속했고 나온이 역시 “불을 끄고 놀이하자”라는 의견을 스스로 내었다. 그 뒤 다시 노래방 놀이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순서를 정해 차례를 기다리며 친구의 노래에 박수를 보냈고, 자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 제목을 말하며 무대에 올라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뒤 큰 박수를 받았다.

이처럼 ‘함께 기록하는 하루 기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교사 간의 단절을 메우는 소통의 통로이자 한 유아의 표현을 더 풍성하게 바라보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매일 함께하는 기록과 배움을 지원하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 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통합교육의 밑바탕이 되었고 특수교사와 나는 특수유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함께 더 행복한 교실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서로 나눈다.

06. 관계와 참여로 유아 평가 더하기

“

유아의 배움은
특정한 장소나
특별한 누군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경험,
유치원에서의 생활,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순간들이 서로 연결되며
유아의 성장을 이끌어 간다.
그렇기에 유아 평가는
교사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유아 자신과 가정, 그리고 유치원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서로의 목소리가 모일 때
유아의 배움은 더 깊고 풍요로워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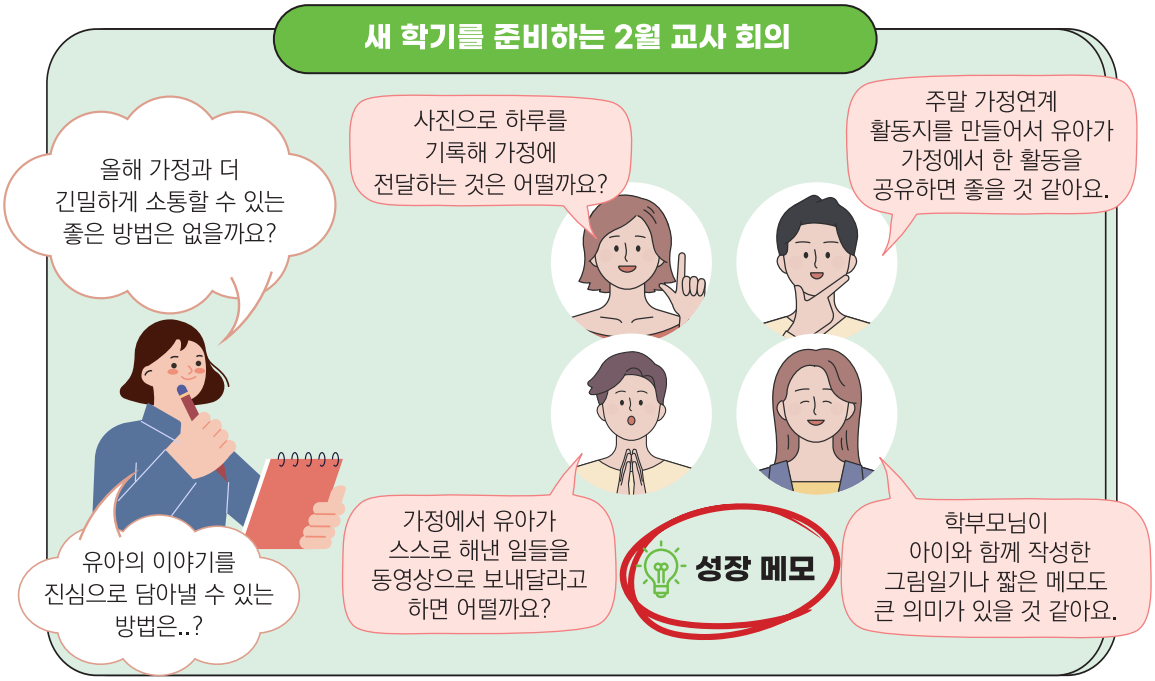
06 관계와 참여로 유아 평가 더하기

가정과 함께 키워가는 성장나무, 평가로 이어지다




윤재
윤재
윤재
하이야~
보드게임 정리하는데
엄마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정리를
잘해줘서 고마워♥
유치원 가기전
줌바를 (물통, 간식통, 파)을
스스로 꺼내 가방을 챙겨서
덕분에 아침시간이
여유로웠어! 고마워♥
•배주원•

유아의 성장은 유치원과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때 비로소 유아의 성장이라는 완성된 그림이 보인다. 하지만 그 소통의 방법은 매년 고민이 된다. 올해도 변함없이 동료 교사들과 새 학기를 준비하며 이야기한다.



우리 반 복도 벽에는 커다란 나무 윤곽 그림이 붙어 있다. 처음에는 앙상한 줄기와 가지뿐이었지만, 학부모가 가정에서 발견한 유아의 성장 이야기를 꽃 모양의 메모지에 짧게 적어 보낸 메모가 나무에 하나둘씩 붙어 꽃나무가 되었다. 처음 이 활동을 시도할 때 걱정이 많았다. '학부모님들이 꾸준히 메모를 남겨줄까?' '형식적인 글이 되진 않을까?'... 그래서 활동 전, 가정에 이렇게 전했다.

**"성장 메모는 유아가 가정에서 잘한 일 뿐만 아니라,
유아가 시도한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유치원에서의 모습과 만나 유아의 배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원하는 유아의 가방에 꽃 메모지를 넣어 보내드립니다.
꽃 메모지에 자녀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를 적어 보내주세요.
이번주부터 한 주에 1~2개의 편지를 보내주시면, 금요일마다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칭찬과 격려,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종종 "정리 잘했어!", "멋지다!"와 같은 칭찬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칭찬은 주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아이가 어른의 평가에 기대게 만들 수 있어요.
(칭찬 예시: "정리 잘했네! 똑똑하구나.")

반면에 격려는 과정과 노력을 바라보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이런 격려는 자신감, 책임감, 배려심을 키워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격려 예시: "네가 스스로 정리해줘서 방이 깔끔해졌어. 가족 모두 기분 좋게 지냈단다.")

성장 나무에 붙은 작은 꽃들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유아가 유치원과 가정의 협력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평가 자료가 되었다.

가정의 모습이 더해지면서 유치원에서의 놀이와 일상의 모습이 연결되어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성장 메모는 결국,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유아의 배움과 성장 과정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통로가 되었다.

성장 나무가 주는 메시지

이제 복도의 나무는 꽃잎으로 가득하다. 유아들은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성장 나무를 바라보며 다른 유아들의 이야기도 함께 읽는다. 그 과정에서 성장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유아 평가는 단순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기록하는 일이 아니다. 유아의 의미 있는 변화를 함께 찾고 나누며 응원하는 과정이다. 성장 나무는 교사와 가정의 시선을 모아 배움의 과정을 가시화한다. 꽃잎이 풍성한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는 깨닫는다.

"유아의 성장은 교사와 가정이 함께 키운 숲이다."

참여가 만든 놀이 확장, 평가로 이어지다

유치원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는 매일 새롭고 다채롭다. 유아들은 스스로 놀이의 규칙을 정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갈등을 경험하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라는 가치를 배워간다.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기에 매월 우리 반 유아들의 놀이와 배움을 사진과 글로 정리해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이는 단순한 "소식 전달"이 아니라,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원하기 위한 유아 평가의 확장된 시도다.

질문을 통한 연결: 가정과 교실 사이의 소통의 다리



이 놀이와 배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학부모에게 질문을 던진다.

소통주제 1

앞으로 우리반에
어떤 놀이가
이어지면 좋을까요?

소통주제 2

유아들의
놀이를 보고 난 후의
느낀 점이나 소감은
무엇인가요?

소통주제 3

이 놀이와 배움
이야기를 읽고 난 후
우리반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나비와 개구리






봄이 되면 만날 수 있는 곤충!
나비의 구조와 성장과정을 알아보고 나비 날개를 꾸몄어요.
나비처럼 꿀을 찾아보기도 하고 꿀을 먹는 게임도 했어요!






우리반에 올챙이가 놀러왔어요! 올챙이를 관찰하며
개구리의 성장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올챙이와 개구리 노래도 불러보고,
개굴개굴 개구리가 되어보기도 하면서 놀이했답니다.

우아, 봄이다






「우아, 봄이다」 동화를 듣고 처응으로 동극을 해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동물 역할을 정하여 동화 내용에 맞춰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꽃가게 놀이에서 사용한 꽃다발과
교실에 있는 소품을 이용하여 동극을 더 재미있게 해보았어요.

역통합활동

역통합활동으로 떡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했어요
봄꽃 색깔의 떡으로 맛있게 만들어 보았답니다.






놀이 속 배움

-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했어요. [신체운동·건강]
- 봄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했어요. [의사소통]
- 봄과 관련된 놀이와 활동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했어요. [사회관계]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겼어요. [예술경험]
-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졌어요. [자연탐구]

우리들의 다음 놀이도 기대해 주세요

이 질문들은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상상하며 귀 기울이는 동반자로 참여하게 만든다. 그리고 학부모의 시선은 교사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유아의 놀이와 배움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는 곧 상호주관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평가로 확장된다.



교사

이 놀이와 배움을 읽고 난 후
우리반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꽃과 동물에 대해 친구들과 많이 알아보았구나.
직접 공원에 나가서 봄을 만나고 느껴보면 어떨까?



학부모



교사

유아들의 놀이를 보고 난 후의
느낀 점이나 소감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봄에 대해 많은 활동을 했고 그 활동들이 뻗어나가며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생각도 같이 뻗어나가는 것 같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겠네요.



학부모



교사

앞으로 우리반에 어떤 놀이가 이어지면 좋을까요?

봄에 대해 놀이하면서 요리 활동도 해보고
꽃가게 놀이도 했으니 다양한 가게 놀이나
여러 직업 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만든 놀이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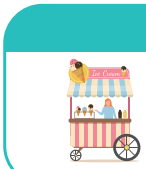
학부모가 보내주신 소감 중에는 종종 새로운 놀이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다음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가게 놀이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 놀이에서 역할극을 실제 생활과 연결된 장면으로 발전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은 다시 교실로 돌아와 아이들과 이야기된다.





해솔1반
아이스크림가게





해솔2반
편의점





해솔3반
초코딸기카페





해솔4반
딸기빵가게

학부모가 제안한 다양한 가게 놀이와 직업에 관한 의견을 교실에 소개한 뒤, 유아들과 어떤 놀이를 해보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아들은 여러 아이디어를 나누고,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역할 놀이로 출발했지만 유아들의 흥미와 참여가 이어지면서 놀이 영역은 점차 다른 반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유아들은 아이스크림 가게, 편의점, 빵가게 등 다양한 가게 상황을 직접 설정하고 역할을 나누며,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놀이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넘어 교육과정 영역의 내용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었다. 유아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제안한 의견에 새로운 놀이로 상상력을 확장한다. 학부모와 유치원의 시선이 연결되어 놀이가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이다.

소통이 만든 변화

모든 가정이 처음부터 유치원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놀이 기록을 정기적으로 보내도 반응이 없거나, 교사의 질문에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교사로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정성껏 기록해 꾸준히 전달하기로 마음 먹었다. 유아 평가는 단지 교사의 관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시선과 이야기가 더해질 때, 유아의 배움은 더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드러난다. 이는 곧 평가가 교사 개인의 시각을 넘어,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과정임을 보여준다.

작은 관심이 만든 연결의 시작

나영이의 부모는 평소 회신도 거의 없고, 유치원 행사 참여도 소극적인 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만든 이야기가 가정으로 전달된 후 뜻밖에도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그 작은 반응이 계기가 되어 다음 기록에 나영이가 블록으로 무대를 꾸미고 친구들에게 차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집중력과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해 담았다. 이후 나영이 부모는 나영이의 놀이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유치원과의 대화도 늘어갔다.

집에서도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 나영이 엄마 -









짧은 메시지가 만든 긴 변화

맞벌이로 인해 유치원과 소통이 어려웠던 준영이 부모는 교사가 사진과 짧은 글로 기록해 전달한 '준영이가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놀이 모습'을 본 후 이렇게 전했다.

친구들과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함께 읽는 시간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아이가 집에서는
말수가 적어 걱정했는데 유치원에서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글도 읽고.... 정말 다르군요.



그 후 부모는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 준영이와 유치원 이야기를 나누는 노력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역할극 놀이도 해보았다고 한다.

놀이라는 것은 유아들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배우는 시간이며, 그러한 배움 속에는 자연스럽게 친구를 이해하고 함께 상상하고 탐구하는 경험도 담겨 있다. 학부모에게 전달한 놀이에 대한 사진과 글을 통해, 가정에서도 "이때 네가 친구랑 이렇게 상상하며 놀이했구나!" 라는 대화가 이어진다. 유아는 그 과정을 돌아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피드백은 유아들에게 다시 이야기로 들려준다.



"태경이 엄마가 이번에 너희가 친구들과 힘을 합쳐 길과 집, 공원까지 만든
블록 마을이 정말 멋지다고 하셨어."

"소은이 아빠는 너희가 놀이 도중에
'길을 넓히자', '여기에 다리를 놓자' 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정리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고 칭찬해 주셨어."

이렇게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통해 유아들에게 자신들의 놀이가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전달된다. 또한 가정과 놀이를 다시 보고 놀이 속 배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학부모가 자녀의 놀이와 놀이 속 배움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유아 평가의 깊이를 더해준다. 『놀이와 배움 이야기』는 학부모의 참여를 이끄는 평가 자료이자, 학부모와 교사, 유아 사이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었다.

"관계가 변하면 시선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면 평가는 더욱 살아난다."

07. 생활기록부,
아이를 다시 만나는 시간

“

생활기록부 500자 안에
한 유아의 일년이 오롯이 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관찰하고 성찰과 사유를 통해
지원해 갔던 교육과정 실행의 기록들을 되돌아본다.
그 과정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유아의 현재의 삶과 그리고 이어지는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

07 생활기록부, 아이를 다시 만나는 시간

학기 말, 어김없이 생활기록부를 쓰는 시간이 돌아왔다. 한 아이의 일 년을 마주하는 시간, 늘 익숙하면서도 조심스럽다. 500자 안에 한 아이의 일 년이 오롯이 담기길 바라며 그 동안의 기록들, 내 머릿속의 순간들, 아이와 나눈 말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본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모으다 보면 그동안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아이의 마음이 다시금 보이곤 한다.

조용했던 가온이

가온이는 우주에 대해 참 많이 알고 있었다. 우주 책을 줄줄 읽고, 그림엔 늘 행성이 떠 있었고, 아는 것을 나에게 조심스레 설명했었다. 그런데 나는... 가온이를 위해 무얼 했을까? "오 멋지다, 어떻게 그런 것도 알아?" 하고 감탄만 하고 말았던 건 아닐까? 내가 그 관심을 좀 더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놀이로 연결해줬더라면, 가온이에겐 유치원이 더 기대되는 곳이 되지 않았을까. 매일의 등원이 조금은 더 즐거웠을지도 모른다. 이제 곧 수료를 앞둔 가온이. 나는 여전히 가온이의 우주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다는 마음이 남는다. 가온이와 나눈 조용했던 몇 마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1년 내내 나를 힘들게 했던 민규

민규는 해양생물을 좋아했다. 덕분에 나는 '바이퍼피쉬'라는 생물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림을 보여주며 또박또박 설명해줬지만 내가 알아듣지 못해 함께 태블릿으로 찾아보던 날, "맞아요! 이거예요!" 하며 둘이 마주 웃던 순간이 아직도 선하다. 책상 다리 밑을 바다로 만들고, 물고기를 한가득 그려 붙이며 놀던 날, 열심히 만든 심해어 사전책을 내게 선물하고는 내가 잘 보관하고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던 모습…

돌이켜보면 민규에게도 사랑스러운 순간이 참 많았다. 처음부터 이 아이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않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반짝이는지를 더 빨리 찾아주었다면 내 시선도, 아이의 놀이도, 우리 관계도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생활기록부는 어느새 나의 반성이 되고, 되새김이 되고, 또 다짐이 된다.
'다음엔 조금 더 일찍,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보자. 그 안에 아이의 마음이 있고, 배움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강우의 탈 것 이야기

놀이 주제가 바뀌어도 강우의 탈 것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강우의 관심사를 따라가며 강우를 더 깊이 이해해 보고자 했다.

3월
우리 유치원

강우는 매일 다른 종류의 탈 것을 만들고 소개하며 탈 것에 대한 관심사를 드러낸다.



"지게차에요. 앞, 뒤, 위에도 벽돌을 실을 수 있어요."



"비행기 날개가 똑같아야 떨어지지 않아요"

4월
봄

봄나들이 놀이가 기차여행 놀이로 이어졌다. 교실 속 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던 강우가 기차 만들기에 관심을 보이며 놀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기차는 여러 칸이니까 썰매를 더 연결해야 돼."



"밖을 구경해야 하니까 창문도 만들자"

교사의 성찰과 사유



탈 것이 등장하는 놀이에서는 흥미를 보이며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정해진 주제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가'보다는, 아이의 관심이 어떠한 상황과 만나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놀이로 이어지며 배움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함을 느꼈다. 나는 강우의 관심과 흥미를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배움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5월 원시인

원시인들이 굴리는 방법을 이용해 무거운 것을 옮겼던 방법에 흥미를 보이며 교실 주변에서 통나무와 비슷한 모양의 원통 모양의 매직, 지관, 플라스틱 봉을 찾아 블럭통을 옮긴다.



"바퀴처럼 굴러간다!"



"무거운 사람도 옮길 수 있네!
원시인들 자동차 같은데?"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기

원시인이 통나무로 돌을 옮겼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고 원통 모양의 물건을 찾아 굴려보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자연탐구)**. 물체가 쉽게 움직이는 원리를 반복적으로 실험하며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자연탐구)**. 블록통을 옮기며 바퀴의 원리를 유추하고 이를 '원시인들의 자동차'로 상상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놀이를 확장한다**(의사소통)**.

7월 여름

이동형 옷장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놀던 중,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책상으로 대형 비행기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강우는 "책상으로 만들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라며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친구들이 책상을 이어 붙여 비행기를 만드는 동안 곁에서 바라보기만 한다.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비행기는 움직여야 재미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대신 비행기 안이 엄청 넓어졌잖아. 강우라면 어떻게 꾸미고 싶어?"

"조종석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비행기 탈 때 여권도 있어야 해요.
몸 검사하는 곳도 만들어야 하고요!"

"강우 아이디어 덕분에 더 재미있어지겠는걸?"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고 보안검색대를 만드니 놀이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교사의 성찰과 사유



탈것의 기능과 움직임에만 집중하던 강우가 점차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놀이 속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강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겠다.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기

놀이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을 때, 강우는 비행기 타기 놀이를 계속 하고 싶은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며 비행기 놀이에 필요한 여권과 보안검색대 만들기를 제안한다**(사회관계)**. 비행기 놀이는 자연스럽게 공항 놀이로 확장되었고 강우는 친구들과 파일럿, 승무원, 승객 등의 역할을 나누며 사이좋게 놀이를 이어갔다**(사회관계)**.

9월
올림픽

올림픽 종목으로 사이클을 제안한 강우는 박스를 바퀴 모양으로 이어 붙여 굴려보고, 박스 안에 들어가 바퀴를 움직이려 계속 시도한다.



"내가 안에서 굴려볼게.
너는 밖에서 밀어줘!"

역할을 나누고, 바퀴가 굴러가기 위한 힘의 방향과 균형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제법 빠른 속도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사이클 경기가 시작됐다.

교사의 성찰과 사유



처음에는 강우의 바퀴 굴리기가 올림픽 종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퀴를 만들고 굴려보며 몸으로 균형을 잡고 친구와 힘을 모으는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다. 아이들이 어떤 경기보다 즐겁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움은 교사가 정한 틀 안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과 접근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느꼈다.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기

박스를 이어 붙여 바퀴 모양으로 만들고 굴려보며 바퀴라는 물체의 특성과 움직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자연탐구)**. 직접 박스 안에 들어가 굴려보며 몸의 균형을 잡고 바퀴가 레이스 안에서 굴러 갈 수 있도록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신체운동·건강)**.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힘의 방향과 균형을 또래와 함께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동한다**(사회관계)**. 여러번의 시도 끝에 바퀴가 빠른 속도로 굴러가자 경기방법과 규칙을 만들고 사이클 경기에 즐겁게 참여한다**(신체운동·건강)**.

10월 국보 이야기

선덕여왕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된 강우. 여왕과 신라금관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탈 것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옛날 마차 사진을 보며 만들 방법을 함께 궁리한다.





"여왕님은 마차를 타고 어디를 다녔을까?"



"궁궐 밖으로 구경도 하고
여행도 갔을 것 같아요"



"먼 길을 갈 때는 누구랑 함께 갔을까?
마차 안은 안전했을까?"



"여왕 얼굴을 가릴 수 있게 지붕도 만들고
천도 달면 돼요. 그리고 앞이랑 뒤에서 무
사들이 지켜줄 거에요!"

교사의 성찰과 사유



이제 강우의 탈것은 단순히 '빨리 이동하는 도구'가 아니다. 누구를 태우고, 어디로 가며,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까지 상상하며 놀이의 맥락과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그런 강우를 바라보며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결과물을 지켜보는 데 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아이의 놀이와 사고의 흐름을 관찰하고, 질문을 건네며 스스로 생각을 넓혀가도록 돕는 일일 것이다.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기

강우는 신라 시대의 선덕여왕과 금관을 지킨다는 맥락에서 탈 것의 기능적 역할을 넘어 여왕을 보호할 수 있는 마차의 구조까지 떠올리며 책상, 천, 끈 등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활용해 마차를 구성한다**(예술경험)**. 마차 위에 지붕과 천을 덮어 햇빛을 가리고, 금색 종이로 장식하며, 마차 앞에 끈을 연결해 말을 표현하는 등 우리나라 마차를 구성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다**(사회관계)**.

12월 감사

졸업을 앞둔 형님들에게 줄 선물을 배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던 중, 강우는 형님들도 함께 탈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형님들이 "메뉴판이 없잖아!", "불빛이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아"라고 말하자, 강우는 메뉴판을 그려 붙이고 전구 장식을 더하며 놀이를 이어갔다. 강우의 제안으로 시작된 푸드트럭은 형님과 동생이 함께 즐기는 놀이 공간이 되었다.

교사의 성찰과 사유



강우의 놀이를 따라가며 나는 '무엇을 시켜야 할까'가 아니라 '이 아이는 무엇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가'를 먼저 묻는 교사의 시선을 배우게 되었다. 겉으로는 주제와 어긋나 보이던 강우의 탈것 놀이는, 알고 보니 강우가 세상을 탐색하고, 관계를 맺고 생각을 펼치는 중요한 표현이었다. 이제 수료를 앞둔 강우를 바라보며, 아이의 관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일이 교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그 마음을 품고 다음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다짐을 해본다.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기

주변의 의자, 옷장, 미술재료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푸드트럭을 만들고**(예술경험)**, 형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메뉴판을 만들고 푸드트럭에 전구 장식을 더하는 등 서로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존중하며 함께 완성해 가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예술경험)**. 완성된 푸드트럭을 끌며 형님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낀다**(사회관계)**.

강우의 생활기록부

연령	발달상황
4세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호기심이 많아 위인과 관련된 역할놀이를 즐겨하고 관련된 놀이 공간이나 소품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미와 아름다움을 반영하여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임. 단체 운동 경기를 할 때, 각자의 신체 능력에 맞는 역할을 나누어 전략을 세우고 경기를 주도하며, 팀원들과 협력하여 참여함. 교통기관에 관심이 많아 블록으로 자동차, 배, 공사차 등 다양한 탈것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을 즐기고, 친구와 함께 탈 수 있는 기차와 비행기를 구성하여 여행 놀이로 확장하는 등 자신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감. 통나무를 이용해 무거운 것을 옮기던 전통적인 방법에 호기심을 가지고 교실 주변에서 원통 모양의 물건을 찾아 굴려보며 실험하고, 물체가 쉽게 움직이는 원리를 반복적으로 탐구하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협력함.

유아 평가 2025

유아의 삶과 배움을 찾다

기 획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최영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진영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

총 괄 장소영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사)

집 필 한유진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경성 (고등나래유치원 원장)
양소라 (고등나래유치원 원감)
임자옥 (도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정효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새롬 (시화유치원 교사)
김은령 (회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지선 (수현유치원 교사)
유혜민 (다솔유치원 교사)
이규진 (꿈누리유치원 교사)
이은혜 (향동유치원 교사)
최성임 (도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검 토 황선이 (감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김지영 (내리숲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유아 평가 2025

유아의 삶과 배움을 찾다

발 행 일 2025년 10월 31일

발 행 인 경기도교육감

발 행 처 경기도교육청(031)249-0636

저작권자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 이 자료의 저작권은 경기도교육청에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유아 평가 2025

유아의 삶과 배움을 찾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